

책만큼 가볍고, 책만큼 무겁고 싶다

안이영노 | 문화평론가

책 냄새를 맡으면 문득 학창시절이 떠오른다. 공부만큼 지겹고 또한 두려운 것이 없었던 만 눈물날 만큼 학창시절이 그렇다. 책 가량이 사이로, 혹은 모난 그 엉덩쪽에 깊숙이 코 묻어본다. 이상하다. 책은커녕 잔디에 뒹굴며 놀기만 했던 대학시절의 그 공기, 그 햇볕이 이 책 냄새와 겹치는 것은 왜 일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유난히 축제가 많아졌다. 축제는 이상향이다. 우리가 축제를 자주 여는 것은 점점 우리 삶이 그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 최근 몇년 동안 나는 축제 이벤트만 기획하며 지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즐거운 여가와 마음의 휴식을 잇는 지 오래다.

축제가 유쾌 없이 일만 하던 몇십년 전, 우리들 부모의 졸라맨 허리띠는 오히려 넉넉했다. 바쁜 우리는 축제의 도시에 살지만, 축제 없던 그때는 여흥이 존재했다. 그때 그 손엔 책이 있었다.

이벤트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 가르치는 학문이 있다. 일찍이 마을 축제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이벤트는 기업의 장사를 위해서건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건 서로 사귀고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TV나 컴퓨터처럼 이벤트 역시 처음에는 선한 대중 미디어다.

한때 우리는 책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았던가. 문자가 가장 위대한 문명의 이기고, 책이야말로

피와 땀으로 이뤄진 문명의 미디어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발명품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캄코더를 들거나 인터넷을 열면서 피와 땀이 필요 없는 편리함을 논한다.

유난히 축제가 많아진 것은 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졌기 때문이고 책 읽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시를 혼비백산 뛰어다니는 동안 주인 없는 축제 이벤트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우리가 뛰어다니는 동안 책도 그렇다. 방해받지 않고 내 두 손에 들 수 있는 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책이야말로 내 두 손에 든 축제다. 주인 없는 축제처럼 기다리던 책을 펼치고 고향 같은 익숙함을 만나고 싶다.

이제 마라토너 대신 보행자가 되고 싶다. 산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책장을 넘기듯 내가 사는 도시를 음미하고 싶다. 책을 읽으면서도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 의자가 있고, 거기에 걸터앉아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

대도시라도 좋다. 환경 문제가 크지만 매연·소음이나 교통 지옥은 참을 수 있다. 소공원이 많은 도시, 의자가 많은 도시, 공원의 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주변을 둘러볼 때 나처럼 책보는 사람을 발견하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다.

아직도 난 가끔 다른 도시에 갈 때나, 간신히 그런 시간을 가질 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 중독자다. 소도시의 벤치에 잠시 앉아 독서를 즐길 때조차, 주변을 둘러보면 서울에서의 나처럼 뛰어다니는 그 도시 사람이 보일 뿐이다.

편리하고 빠르지만, 한편으론 경박하고 답답한 시대다. 책만큼 가볍고 싶고, 책만큼 무겁고 싶다. 점점 느려지고 싶다. 충분히, 아주 충분히 멈춰 서 보고 싶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선사하고 싶다. 책처럼 그렇게 말이다. 책이 나에게 그걸 해준다. 축제이자 산책이다.●

통권 제288호 | 2000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이권우

기자 박천홍 김정은

최갑수 강성민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박기아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